

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2133-5579
관련 누리집	hanok.seoul.go.kr	

서울시, 윤씨가옥 새단장 추진… 〈다시 여는 윤씨가옥〉 홍보영상 공개

-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서 친일파 집으로 규명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진
- 건축가 김찬중과 (재)아름지기 설계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조성…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
- 윤씨가옥 가치·리모델링 과정 담은 영상 제작, 21일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 공개
- 시 “네거티브 헤리티지에서 열린 공간으로 돌아올 윤씨가옥에 많은 관심·기대 바라”

- ☐ 1919년경 지어져 오랜 기간 잊히고 훼손되었던 ‘옥인동 윤씨가옥’(종로구 필운대로9가길 7-9)이 새 단장 후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된다.
- ☐ ‘옥인동 윤씨가옥’은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소실을 위해 지은 한옥으로, 과거 윤덕영의 조카이자 순종 황제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잘못 알려지면서 1977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나 사실 관계가 규명되면서 문화재에서 해제된 후 오랜 시간 훼손·변형된 채 오늘날까지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



〈옥인동 윤씨가옥 내부 현황〉

- 시는 '22년 말 가옥을 매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가 김찬중,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부정적 문화유산)인 윤씨가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는 가옥의 건축/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원형 파악 및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현대적 활용을 위한 한옥건축양식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옥인동 윤씨가옥의 가치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진 과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다시 여는 윤씨가옥> 영상 4편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중 1편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가 2월 21일 공개된다.
-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되는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는 ‘경성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벽수산장과 윤씨가옥의 관계를 짚어본다. 벽수산장은 윤씨가옥과 인접해 있었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서양식 저택으로, 윤덕영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병원, 유엔군 지부 등으로 활용되었던 벽수산장은 1966년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1973년 철거되었다.



〈영상 1편 썸네일 이미지〉



〈기록 속 벽수산장의 옛 모습〉

□ 1편 인터뷰이로 참여한 이경아 교수와 건축가 김원천, 김찬중은 벽수산장과 윤씨가옥의 관계를 비롯해 오랜 시간 개인의 영역에서 삶의 경계를 켜켜이 쌓아온 윤씨가옥이 공공의 영역으로 개방되는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 이경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당시 세력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과시하는 저택’과 ‘주거 한옥’의 조합, 이른바 이중생활 경향을 볼 때 윤씨가옥이 소실택으로 지은 한옥을 넘어 벽수산장과 짝을 이룬 건축물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 김원천 소장(참우리건축 한옥연구소)은 윤씨가옥이 1848년 헌종이 후궁의 처소로 지은 창덕궁 석복헌과 공간구성, 규모, 배치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평면과 기술자들을 동원해 지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김찬중 대표(THE_SYSTEM LAB 건축사사무소)는 각각의 시대상과 요구를 반영해 유연하게 자기 효과를 발휘했던 집터의 생활사를 흥미롭게 바라본다. 이는 향후 지역 기반 공공시설로 개방될 윤씨가옥 리모델링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한편, 2편~4편은 윤씨가옥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발맞춰 오는 6월과 10월, 2025년 2월 공개한다.

- 2편 ‘윤씨가옥의 건축 특징과 한옥건축양식’(’24.6월 공개 예정) : 윤씨가옥의 건축적 특징, 남산골한옥마을의 복원된 모습과 비교, 덧대진 부속물 철거 후 현황, 한옥건축양식-한옥의 새로운 해석과 활용 소개
- 3편 ‘윤씨가옥, 새로운 한옥을 꿈꾸다’(’24.10월 공개 예정) : 건축가가 제안하는 한옥의 현대적 활용, 한옥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 소개
- 4편 ‘시민에게 열린 벽수산장 윤씨가옥’(’25.2월 공개 예정) : 완성된 공간 영상, 시민들에게 열린 친일파의 유산 소개

- 〈다시 여는 윤씨가옥〉 시리즈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과 라이브서울(tv.seoul.go.kr), 오픈하우스서울 유튜브 채널(youtube.com/OPENHOUSESEOUL)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윤씨가옥 현장개방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사업들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기간 중 실시간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서울한옥 4.0 정책의 일환으로 일상속 한옥, 새로운 한옥, 글로벌 한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폐가로 방치되어왔던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1. 윤덕영 인물정보

- 2. 옥인동 윤씨가옥 개요 및 관련 이미지
- 3.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 영상(별도첨부)
- 4.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 영상 스크립트(별도첨부)

[첨부1] 윤덕영 인물정보¹⁾

☐ 인물정보

- 이 름 : 윤덕영(尹德榮)
 - 본 관 : 해평(海平)
 - 자/호/이명 : 중덕(仲德) / 벽수(碧樹) / 복영(福榮)
- 생몰연도 : 1873. 12. 27. ~ 1940. 10. 18.
- 인물개요
 - 경술국적, 자작, 중추원 부의장,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 영돈녕부사 윤철구의 아들이자 후작 윤택영의 형,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의 백부이고, 처는 애국금차회 회장 김복수

☐ 주요 친일 행적

- 1910년 8월 시종원경으로 ‘합병조약’을 체결하는 어전회의에 참석해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협박·회유에 동의하여 조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결시킴으로서 ‘경술국적’으로 지탄받음
-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게서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천황 메이지(明治)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행사에 초대받아 천황이 주는 주병(酒瓶)과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 5만원 받음
 - ※ 이후 1932년 100만원 이상의 재산 소유, 1940년 조사한 경성 호별세부(戶別稅賦)에 따른 등급에서 47등을 할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함
- 1925년 7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40년 8월까지 연임
- 1939년 12월 박영효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칙선 의원에 임명
- 1940년 8월 중추원에서 조선인으로 최고 지위인 부의장에 올랐으며, 9월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 10월 왕공족(王公族)심의회 심의관으로 위촉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7, 8, 9, 11, 17, 18,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1』, 현대문화사, 2009

[첨부2] 옥인동 윤씨가옥 개요 및 관련 이미지

□ 옥인동 윤씨가옥 개요

- 소재지 : 종로구 필운대로9가길 7-9(옥인동 47-133) ※ 1919년 건립
- 규모 : 대지 537.5㎡(162평), 건축면적 254.55㎡(77평)
- 구역특성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주요연혁
 - 1976년 : 도성 내 민속경관지역 조사연구²⁾ 시행
 - ▶ 구전에 근거하여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추정하고 건물의 건립연대 역시 윤비 책봉시기를 1875년³⁾으로 보아 약 100년(1976년 기준) 전으로 추정
 - ▶ 조사 당시 서용택 외 14가구 거주
 - 1977년 : 시 민속자료 23호 ‘옥인동 서용택가’로 지정
 - 1997년 : 시 문화재위원회 지정 해제 심의 ‘가결’ 및 고시
 - ▶ 건물이 문화재 본래의 원형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 및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도괴 위험이 있어 문화재 지정 해제
 - 1998년 : 남산골 한옥마을 내 복원,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로 명칭 변경
 - 2009년 : 사료 조사결과⁴⁾ 친일파 윤덕영이 소실 거주용으로 1919년경 건립한 것으로 규명
 - ▶ 순정효황후의 삼촌인 윤덕영이 김수항과 민규호, 민태호 형제 등의 별장 터였던 ‘송석원’을 1910년 매입한 후 주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아방궁’으로 불리던 석조건물 1동과 목조건물 약 17동, 연와조와집 1동 등으로 구성된 ‘벽수산장’으로 새롭게 조성하면서 1919년경 그의 소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립한 한옥
 - 2010년 : ‘옥인동 윤씨가옥’으로 명칭 변경
 - 2019년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 2022년 : 빈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매입

2) 서울특별시,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연구』, 1976

3)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연구(1976)』에서는 윤비 책봉시기를 1875년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윤비가 황태자비로 간택되어 가래를 치르고 입궁한 것은 1897년이다. 순종의 첫 번째 황후로 송석원과 관련성이 깊은 순명효황후 민씨도 1882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했다.

4) 김수정, ‘옥인동 윤씨가옥 사료조사 결과’, 서울시 문화재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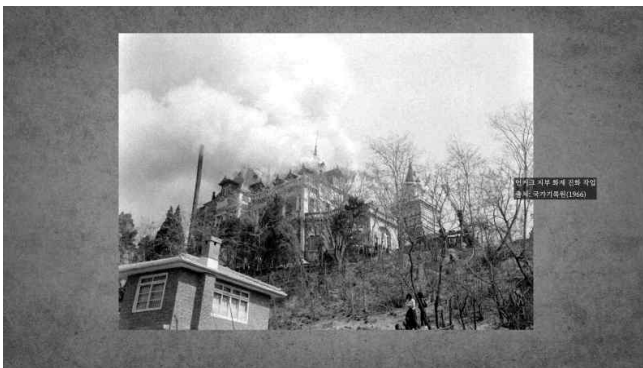
□ 관련 이미지



〈1편 영상 썸네일 이미지〉



〈1930년대 경성과 벽수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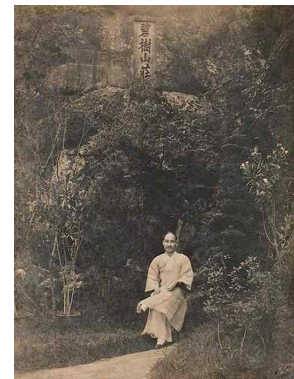
〈벽수산장 화재〉



〈기록 속 벽수산장의 옛 모습1〉



〈기록 속 벽수산장의 옛 모습2〉



〈윤석영 생전 모습〉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1〉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2〉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3〉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4〉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5〉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6〉



〈옥인동 윤씨가옥 현황7〉



〈1편 인터뷰이(이경아 교수)〉



〈1편 인터뷰이(건축가 김찬중)〉



〈1편 인터뷰이(건축가 김원천)〉